2017. 7. 13

Market behavior 엿보기

eBEST EDGE

옐런과 중국의 선택

Investment 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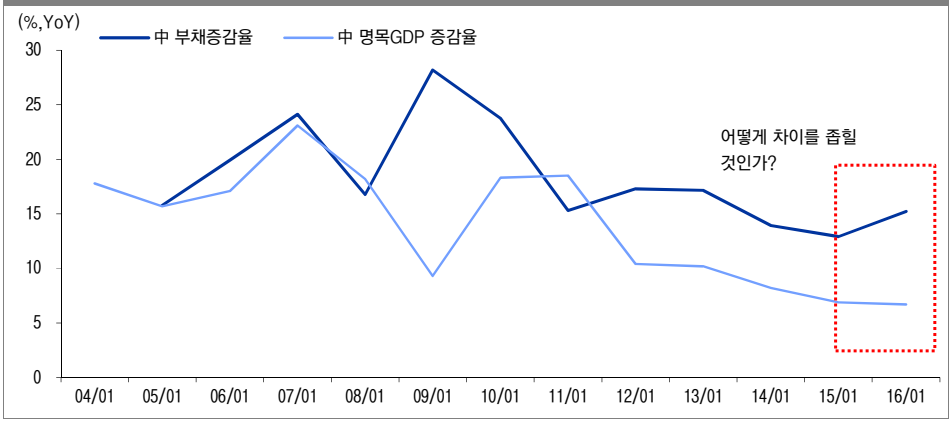
옐런의 의도는 명확하다. 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하기까지 지금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 장기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안정되면 달러화가 안정되면서 균형은 유지된다. 이는 그린스펀 수수께끼의 재현이다(6월 19일자 '2004년의 기억과 위안화' 참조). 이를 통해 미국/유럽/신흥시장은 선순환 사이클로 글로벌 경기는 확장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의 선택도 보다 명확해진다. 미국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중국도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옐런의 발언을 통해 중국은 선택에서 여유가 생겼다. 부채증가율 상승에도 GDP 증가율이 오르지 못한 중국 입장에서 둘간의 갭을 좁히고자 하는 확장정책을 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흥시장도 비슷한 입장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에서 환율이 안정되지 못하면 정책선택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환율이 안정되면 경기회복을 위한 확정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신흥시장 회복은 달러화 약세와 더불어 수출기업들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

지금의 균형은 경기확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누군가에 의해 균열이 나타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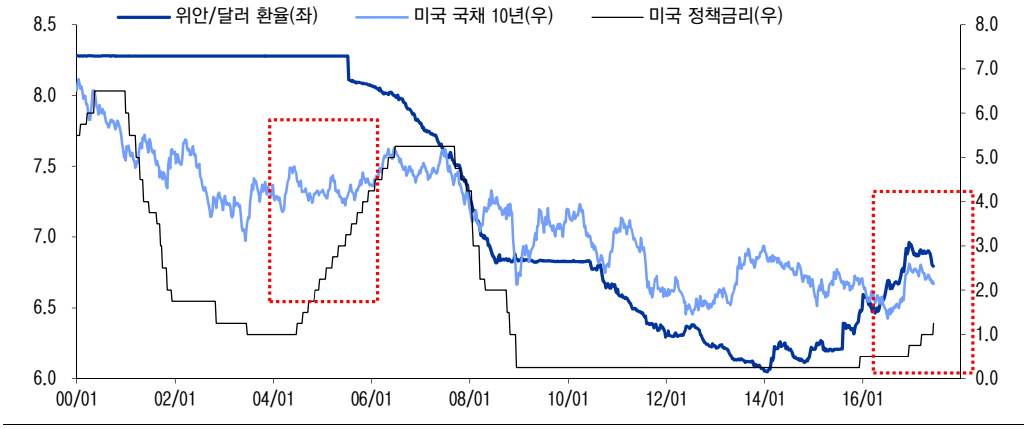
중국의 선택은?



자료: Win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Strategy
양해정
02. 3779-0151
hjyang@ebestsec.co.kr

그림1 2004년의 기억과 위안화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양해정)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